

그레데의 남은 일을 정리하고

치유한 제자 디도

-복음으로 여는 디도서-

여호수아 1:5-6, 디도서 1:5-9

정영돈 목사님

* **수1:5-6**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 **딤후1:5-9**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임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임하게 하려 함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자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문제를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헌신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영육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위하여 나의 현장을 위하여,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서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하며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당장 도전하고 실천하여 승리하고 인약으로 붙잡을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오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니 강풍이 생각이 났다. 물이 없으면 생활도 불편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비를 보며 감사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작은 일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사람을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미션을 맡길 수 없다. 그런 일도 못 이기는데 큰일을 못 맡기겠다. 그것은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다. 직원에게 일을 성정을 보면 중요한 모델적 인물이 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남긴 일을 완성한 제자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봤을 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디도도 그런 인물이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남긴 일을 정리한 제자였다. 디도에 대해 꼭 연구를 해보면 처음부터 3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힘을 때 부모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디도는 반대였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는가. 그리스도로 결론내라. 예수님은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사 재림하실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섭리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신 창조주이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늘보좌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도하지 않고 강단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방해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사 공생애 3년 동안 모든 메시지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을 보장한 그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순교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있다. 세계복음화하려면 별 일이 다 생긴다. 탄자니아에 갔는데 어떤 청년

을 보고 선교사님이 저 사람이 우리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 또 다른 선교현장은 교회 물건을 다 훔쳐갔던 사람을 끝까지 사역하다 결국 교회를 지키는 제자가 된 사람도 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큰일을 맡아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정리하고 완성시킬 끝까지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린다.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진짜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는 중한 일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와 디도는 스승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공시킨 전도제자들이었다.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훌륭해야한다. 담임목사와 구역 지도자, 교수님보다 훌륭해야 한다. 거기에 절대목표를 두고 살아라. 어제 청년이 결혼했다. 꼭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좋은 사명자를 만나 결혼했다.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자가 30점만 되어도 결혼해라. 마이너스만 아니면 된다. 80점짜리 남자를 원하면 주님만 신랑삼고 살아야 한다. 전도도 어떤 일도 내 마음 속에 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강남에서 입시설명회를 했는데 학원원장이 이렇게 말하더라. 학교에서 1등 못하는 이유는 1등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합당한 힘을 주신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안하더라도 마음속에 세계복음화와 237나라를 살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 결론을 내라. 우리는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필요 없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는 것이다. 특히 디도는 우상숭배와 영적인 문제로 흑암 가득한 그레데 현장을 치유하고 남은 전도사역을 부흥시킨 빛의 제자였다.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 디도라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 굉장한 인물이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헬라인 디도라고 했다. 갈라디아 편지는 사도 바울이 보낸 가장 초창기 편지다. 거기에 갈라디아교회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해야 하는가 아닌가로 갈등을 했다는 것이 적혀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핵심내용인데 디도를 중심으로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디도가 30년 후인 디모데후서에도 나온다.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생겨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해결하지 못한 곳에 디도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디도를 다 따랐다고 나와 있다. 영권이 있고 권위가 있으며 확실한 복음을 전달하여 문제를 다 해결한 인물이었다. 우상 집안의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성격을 잘 참지 못 하는 특성이 있다. 우상숭배하는 영적 문제에서 온 것이다. 그 문제가 가득한 곳이 그레데 지역이었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레데는 그리스신화의 최고 신 제우스의 고향이었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제우스를 잡아먹으려 하자 어머니 레아가 그레데 섬 동굴에서 제우스를 키웠다고 한다. 그레데 섬을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크레타는 유럽 최초의 미노아문명의 발상지로 보고 있다. 비너스여신 고향은 옆에 있는 섬 ‘구브로(=키프로스)’다. 그 지역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의 목회자로 파송한 이유는 디도만이 그 어려운 목회의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성격을 가진 확실한 제자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직장, 학교, 교회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란다.

1.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그레데 섬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개인마다 성격이 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나라마다 국민성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을 치유할 수 없다. 제가 30년 전에 프랑스에 처음 갔었는데 몽마르트 언덕을 갔더니 바로 앞에 지체장인협회 회장님이 서 계셨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프랑스 청년 뺨을 때리더라. 알고 보니 소매치기범이었다. 그 분이 소매치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머니를 깊이 넣어두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브라질을 갔는데 일주일 내내 선교사님이 강도이야기만 하더라. 마트에 강도가 들었는데 한국인이 없으면 상태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죽었다고 하더라. 선교사님도 강도를 만났다고 하더라. 그런데 선교사님 땀이 뿜여있는 동안에 강도 중 한 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다고 하더라.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사람과 지역을 잘 분석해야 한다. 거기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

(1)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레데 섬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1) 불순종하고 (2) 헛된 말을 하며 (3)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하여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곳이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길 수 없다. 교회에서 목사가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다. 교회는 인턴십의 현장이다. 꾸지람을 듣고 봉사하면서 헌금하는 곳이다.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고 마음에 안 들어도 헌신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면 가정에 가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인턴십의 현장이다. 여기서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그런 청년들이 많다. 기쁨과 순종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추천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현장에 가면 전생이다. 해도해도 너무한 일이 많은데 그때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 참으라고 하셨다. 490번 참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불순종 하지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

중하라.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두운 것을 찾지 말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메시지를 찾아라. 매주 찾아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현장에 가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설 명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된다. 지금같은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따라오는 것이 헛된 말이다. 또 이런 사람이 속한다. 거짓말로 가득하다.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 가 아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안되어서 인생 쓰는 모습도 다 거짓 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흑암을 완전 박살내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라.

(2)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레데 섬에 있 었다. 통일교도 자기들이 참어머니라고 하더라. 다 거짓말이다. 그 남편 문선명을 따라서 자기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기준이 이익이다. 이들은 디도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1)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2)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3)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 는”사람들이었다. 저도 신학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에 열심히 듣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이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을 만나 복음을 만났다고 하더라. 그 아이가 통일교 집안 아이였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 이단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넘어간다. 참 진리와 복음만 전달하라. 오직 복음, 전도, 성령을 전하는 것이다.

(3)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 출신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에페니데스라는 시인 겸 철학자이다. (1)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2) 악한 짐승이며 (3) 배만 위하는 게으 림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하는 사람 이었다는 말이다. 복음이 없으면 모두 다 이렇게 산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 다. 그런데 왜 그레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웠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 각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를 바란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말하고 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을 본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사람 의 특정한 점도 가능성으로 본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과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으로 씻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것이 사탄의 울무, 틀, 함 정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부 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연히 설교하시는 것을 들 었다. 그 분 아버지가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매일 밤 10시에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라. 어느 날 대신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대뜸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 알고 보니 그런 욕하는 것을 그냥 받아주신 것이다. 디도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 려운 현장과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영권이 강했는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제자였다. 현장에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깔려있다. 우리 가 아무리 성질이 못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듣는데 세상은 아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복음으로 승리하라. 모든 더 럽고 못 되먹은 인간도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하늘보좌의 능력 과 영권이 있기를 축원드린다. 그래야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하고 악한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치유의 사명이 디도의 남겨진 사역이었다.

(1)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교회와 지역을 치유하려면 목회자와 사명자를 먼저 치유해야 한다. 디도서 1 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감독 즉,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와 교역자들이 하 나님의 청지기로서 지켜야 할 말씀을 13가지나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다. 감독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1) 책망할 것이 없고 (2)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3) 급히 본내지 아니하며 (4)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5) 구두타지 아니하며 (6)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7)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8) 선행을 좋아하며 (9) 신중하며 (10) 의로우며 (11) 거룩하며 (12) 절제하며 (13)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목회자들이 본이 되고 빛이 되어야 치유가 된다.

(2) 두 번째로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장로들을 세워 곳곳에서 빛 을 발할 때 그레데는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로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장 6절에 “(1) 책망할 것이 없고 (2) 한 아내의 남편 이며 (3)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야 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 목사와 똑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말하고 고 있다. 그 중직자를 뽑을 때 잘 뽑는 것이다.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3)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세밀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라 고 말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의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는 “모함하지 말 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젊은 남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었을 때 는 다 비난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살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옛날에 신학대학 부흥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본인이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줄 아는데, 목회를 해보면 그게 아닌 걸 알게 된다. 신학대학원 동기 중 에 데모를 일삼는 사람이 있었다. 15년 후 우연히 강원도에서 뵈는데 눈빛이 선 하게 바뀌었더라. 개척을 15년 하니 바뀌었다고 하더라. 여러분 젊었을 때 잘난 척하지 마라. 20대, 30대, 40대에 겸손해야 한다.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판단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겸손히 말씀도 인생 도 배우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디도처럼 쓰임받는 인물이 된 다. 2장 10절에 보면 종들은 “흠치지 말고” 또 3장 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 에게 나타내게 하라”,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리고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

(4) 그리고 엄하게 책망도 하라고도 권하고 있다. (1)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2)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3) 또한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① 말하고 ② 권면하며 ③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 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다. 성도들도 누가 메시지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레데와 같은 흑암 가득한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아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1)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2)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의 용서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3)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4)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5)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 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 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레데 섬의 사람들과 같이 악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혼과 삶 의 주인으로 바꿔주는 길 밖에는 없다.

(6)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치유의 방법이다. 디도서 3장 6 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 어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 지혜, 사랑, 사명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확신 이 있어야 한다.

(7)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현 장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3장 7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있 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확신을 가지면 다 누릴 수 있다.

디도처럼 그레데와 어려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되었다. 어떤 이상한 사람과 만나도 싸우지 않고 변화 시킬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불평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2. 문제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3. 창세기 3장부터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보통 악 한 머리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탄의 꾀계를 알 수 있다.

4. 전도에 대한 생명 건 사명의식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 혜이고 선물이다.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교현장에 갔다. 오늘 부터 전도캠프하는데 현장에서 전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어라.

5. 30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현장훈련을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되지 않는다. 끝까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훈련에 성공하여 훈련되어 세계복 음화의 주역으로 서기를 기도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영세 전에 선택하여 불러주 셔서 여호수아, 디모데, 디도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 자로, 어떤 현장이든 무속, 점술, 우상의 흑암 가득한 현장과 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현장 에도 많은 일들까지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 옴니다. 아멘”